

종합

내년 G20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한국이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25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지를 확정, 발표했다.

‘공무원 정치중립’ 대책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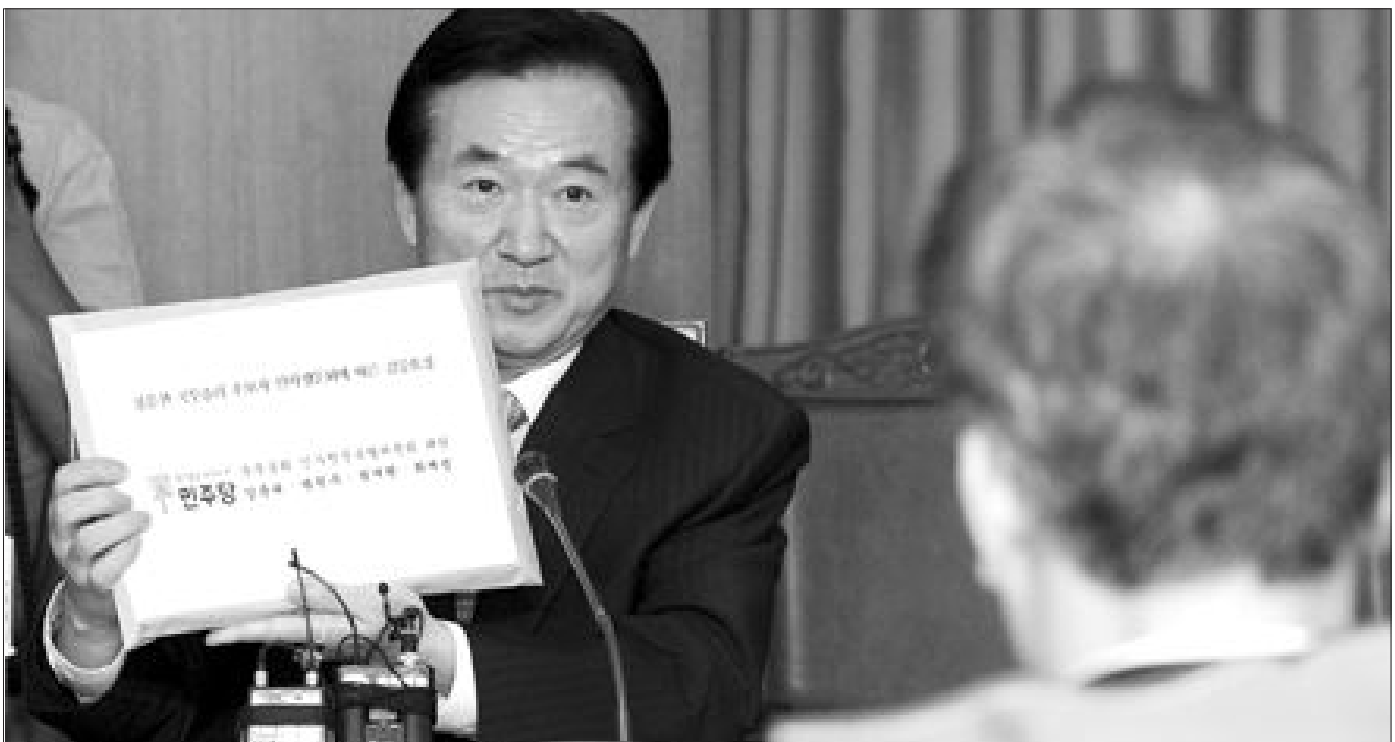
정부 ‘정치운동 금지’ 구체화 등 법 개정 검토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 주목된다.

나 정의가 없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공무원노조의 투표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전남 도민 삶의 질 높이기 정책 모니터단-공무원 워크숍

전남도는 25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과 관계 공무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도민 삶의 질 높이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운찬후보 세무자료 제출하라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백재현, 최재성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수송동 국제청을 방문, 백용호 국제청장에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3의 소득원 의혹’과 관련 세무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별관논란으로 생긴 상처 이젠 치유하고 힘 모을 때”



이병훈 문화도시 추진담당 “오는 10월께 별관의 준치 방식을 포함해 아시아문화전당의 향후 건립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이경훈 중도 실리 택했다

급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이 15년 만에 투쟁보다는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집행부 수장을 선출하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지역민들에 희망 심어준 KIA타이거즈

KIA 타이거즈가 마침내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여러 차례 좌절을 겪은 끝에 얻어낸 한국시리즈 직행이어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동은 더욱 크다.

‘만성적자’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지방공항이 심각하다.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적자를 냈다고 한다.

벌금 못 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특례법 시행- 30일내 신청해야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서머타임·정시퇴근 본격 논의 돌입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고 정시퇴근 문화와 부당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seong) by Kim Jung-do,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and a boat.

순천 정원박람회에 경전철 달린다

첨단 시스템 갖춰 무인운전

순천시는 오는 2013년 순천만에서 열리는 국제 정원박람회의 이동 수단을 포스코가 개발한 친환경 신개념의 소형 경전철(PRT: Personal Rapid Transit)로 정하고 노란색 시장이 25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코 이동회 대표이사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는 무공해 저소음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도 잘 살릴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